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11

남도의 가을을 달린다

한국야구 AG '최상의 대진표'



최고를 꿈꾸는 광산 MTB 팀이 늦가을 남도에서 열리는 자전거 축제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 <광산 MTB 제공>

가족 함께 '사랑 질주'... 대회 2연패 도전

■ 광산 MTB

최고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열린 광주전남 그린 자전거 축제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광산 MTB(회장·이갑신)가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광산 MTB라는 이름으로 공식 모임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 나관수 전 회장을 비롯해 평소 자전거 모임을 갖고 있던 11명의 회원이 더

회원 170명... 각종 대회서 우승

많은 이들과 라이딩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광산 MTB를 결성했다. 팀이 창단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들의 질주는 눈부시다. 회원수가 170명이 넘는 정도로 팀의 규모도

커졌고, 각종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산 MTB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배 켈린저 대회 단체우승을 차지한 이들은 지난해 처음 열린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에서도 단체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환상의 호흡으로 단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들은 개인전에서도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김우철, 전승기, 나관수, 조영수, 오원용씨 등 남성 회원은 물론 이미찌씨도 국내대회에서 1위를 거두며 여성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눈부신 성장에는 매니저 김희권씨의 역할이 컸다. 프로 경륜 선수 출신인 김씨는 회원들에게 기본기 등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이끌고 있다. 자전거와 인

연이 없었던 아내 전희정씨도 김씨의 강도높은 훈련을 통해 개인전 우승까지 차지하는 실력자가 됐다.

광주공항 주변서 야간 맨헌

화·목요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야간 라이딩을 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하고 있는 회원들은 주말 오전에는 광주 공항 일대, 나주 금성산, 무등산 장불재 등지를 달리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회원 중에는 부부가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가족사랑'까지 더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팀에서 5쌍의 부부가 라이딩을 즐기고 있고, 백현근·이미찌 부부는 이번 대회에서도 동반 질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달 13일 조별리그 속적 대만과 첫 판 대결

한국 야구 대표팀이 다음 달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대만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는 행운을 잡았다.

대한야구협회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임 조직위원회가 대회에서 치러질 야구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일정을 이같이 확정해 통보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일정에 따르면 예선 조별리그 B조에 편성된 한국은 다음 달 13일 대만과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고 14일 홍콩과 2차전, 16일 파키스탄과 3차전

을 치른다. 대만은 금메달을 다룰 최고의 경쟁국으로 꼽힘에 따라 한국은 대만과 1차전에서 맞붙게 된 것이 마운드 운영 측면에서 반갑다. 대만 타선을 제압할

에이스 류현진(한화) 같은 선수를 조별리그에 투입해 조 1위를 사실상 확정할 수 있기에 때문이다.

4강 토너먼트는 18일 열리고 동메달 결정전과 결승전은 19일에 치러진다. 한국은 경기력이 우수한 국가로

서 주최국 중국과 함께 조별리그 전 경기를 주경기장에서 치르는 특혜가 주어졌다.

아시안게임에는 8개국이 참가해 A, B조로 나뉘어 조별예선을 치른다. A조에는 일본과 홈팀 중국, 태국, 몽골이 편성돼 있다. A, B조 각 1, 2위가 준결승에 올라 A조 1위와 B조 2위, A조 2위와 B조 1위가 결승 출전권을 두고 맞붙는다.

한국은 대만을 꺾고 B조 1위를 차지해 A조 2위와 4강에서 맞붙어 이겨 결승에 올라 금메달에 도전한다는 복안이다. /연합뉴스

한국여자골프 상금왕 '끝장 승부'



<양수진>

양수진·안신애·이보미 등 우승상금 1억4000만원 걸린 KB 국민은행 투어서 결판

추격하고 있다.

4위 이하의 선수들과는 상금 차이가 1억원 이상 나기 때문에 상금왕은 양수진, 안신애, 이보미 등 3명 가운데 탄생할 전망이다.

1~3위의 격차가 얼마나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키야드에서 열리는 KB국민은행 스타투어는 우승 상금 1억4000만원이 걸려 있어 이들 3명 중 한명이 우승한다면 상금왕은 사실상 결정난다.

상금왕 경쟁 못지 않게 최우수선수에게 주는 대상 경쟁도 관심사다. 이보미는 상금 레이스에서 3위로 뒤져 있지만 대상 포인트에서는 321점을 쌓아 2위 양수진(299점), 3위 유소연(20·하이마트·264점) 4위 안신애(218점)에 앞서 있다. 스타투어는 메이저대회 포인트 70



<안신애>

점을 주기 때문에 양수진과 유소연까지 역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우승자 서희경(24·하이트) 등을 시즌 슌죽이고 있는 강자들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상금왕이나 대상 경쟁은 마지막 대회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평생에 한번 밖에 없는 신인왕 경쟁에서는 1170점의 조윤지(19·한솔)와 1045점의 허윤경(20·하이마트)이 각축을 벌이고 있어 이번 대회에서는 신인왕 싸움도 뜨겁다. /연합뉴스

'바둑 神'들의 전쟁 시작됐다

바둑의 9단계 품계 중 최고의 단계는 9단이다. 9단의 별칭은 입신(入神). 바둑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 는 뜻이다. 입신중의 입신을 가리는 '맥심커피매 입신최강전' 열두번째 대회가 20일 예선을 시작으로 6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번 맥심배에는 현역입영중인 조한승을 제외한 51명의 9단 전원이 참가한다.

예선전은 시니어 성격의 동군(입단 30년, 50세 이상) 24명과 서군(입단 30년, 50세 미만) 19명이 토너먼트로 각각 8명씩 총 16명을 선발한다. 이들

16명은 본선 시드를 배정받은 최철한, 강동윤, 조현현, 박영훈(전기 4강)과 서봉수, 이세돌(군별 랭킹 1위), 유창혁(맥심배 역대최고성적자), 이창호(후원사 추천) 9단과 합류해 24강 본선토너먼트를 벌인 후 결승3번기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휴직의 여파로 불참했던 이세돌 9단이 합류해 타이틀 경쟁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또한 이세돌에 이은 최철한 9단의 대회 두 번째 3연패 달성여부와 이창호 9단의 첫 우승 가능성도 관심사다.

맥심배 오늘 개막...6개월 대장정 이세돌·이창호 9단 등 51명 참가

맥심배는 대회 초반에는 최규병 9단의 생애 첫 우승, 유창혁 9단의 대회 2연패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 대회 때는 8강에서 조현현-서봉수의 라이벌 대결, 원성진-최철한의 동갑내기 결투, 이창호-강동윤의 현직대결, 유창혁-박영훈의 사제대결 끝에 최철한 9단이 막내입신 강동윤 9단을 2-1로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입신최강전은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의 속기전으로 우승상금은 2500만원이다. 바둑 TV에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송한다. /연합뉴스

최경주, 꿈나무들 위한 자선골프대회

최경주재단이 골프 꿈나무들의 동계훈련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를 20일 스키야드72골프장

오션코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골프대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동계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회 지도층 초청 라운드 오늘 스키야드72골프장서

골프 유망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경주(40)가 사회 지도층을 초청해 동반라운드를 펼친다. /연합뉴스

http://bike.kjmedia.co.kr

2010 Green 광주·전남 자전거축제

2010년 10월 31일(일) | 광주광역시청 광장 오전 8시 30분 출발

종 목 | 로드레이스(경쟁 46km)

주 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후 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산경찰서, 나주경찰서

문 의 | 062-220-0541

코스안내

출발(광주광역시청앞) ~ 소각장삼거리 ~ 곡력교삼거리 ~ 동곡로입구교차로 ~ 송정제2교 ~ 평동신단교차로 ~ 동곡치안센터 ~ 본덕교차로 ~ 노안삼거리 ~ 석현삼거리 ~ 동신대앞교차로 ~ 금안교 ~ 평산교 ~ 오정교(오정제) ~ 장등교(장등제) ~ 광산구유수호스텔 ~ 대산삼거리 ~ 대산교 ~ 호정요양병원 ~ 삼거교차로 ~ 22번국도진입(광주방향) ~ 도척(호남대학교 정문)

신청안내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1992년 10월 16일 이전 출생자) MTB(비쿠사이즈: 26 또는 27인치, 비쿠폭: 1.75인치 이상, 전·후 브레이크장착) 자전거 및 헬멧을 소지하고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합한 남녀
 - 대회일기준 만 3년 이내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및 경력선수(참가 제한 없음)
- 참가구분: 단체(4인 1팀, 구성원 1명 구성 제한사항 없음) 및 개인
- 접수기간: 2010년 10월 22일(금)까지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http://bike.kjmedia.co.kr)
- 참가비: 단체전(팀당 100,000원), 개인전(1인 30,000원)
- 지급품 및 혜택: 중식도사탕, 간식, 기념품, 배번, 칩, 심해보험

시상내역

- 단체: 1~30위까지 시상
- 남자개인: 1~10위까지 시상
- 여자개인: 1~5위까지 시상
- 총 상금: 300여 만원
- 단체 시상과 개인시상은 중복 가능
- 포토 제작상도 있습니다.

참가기념품

- 다용도 스포츠 백
- 르까프
- 시중가: 76,000원 상당

